

# 이연희 “20대 때 성장통...여행으로 위로 그 기분 전하고 싶어”

영화 ‘새해전야’ 스키장 비정규직 ‘진아’ 역

아르헨티나 촬영...명장면은 유연석과 탱고

전 남친 역에 최시원 등장...“즐겁게 촬영”

지난해 결혼에 소속사 이전...새로운 변화

“저의 20대를 떠올리며 연기했어요. 성장통을 겪는 인물인데, 지금의 상황이 비록 힘들어도 청춘들이 ‘괜찮다’며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우 이연희가 영화 ‘새해전야’에서 연애도 일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20대 청춘의 얼굴을 그려냈다.

6년 만에 스크린으로 관객을 만나는 그는 지난 2일 화상 인터뷰에서 “재미있게 봤는데,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시길 떨리고 긴장된다”고 말했다.

‘새해전야’는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의 그린 영화다.

취업, 연애, 결혼 등 누구나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을 네 커플의 이야기 속에 담았다.

이연희를 비롯해 김강우, 유인나, 유연석, 이동휘, 천두림, 염혜란, 최수영, 유태오가 출연했다.

이연희는 ‘결혼전야’(2013)에 이어 홍지영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새해전야’에서는 스키장 비정규직으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현실을 벗어나 무작정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나는 ‘진아’ 역을 맡았다. 그곳에서 와인 배달을 하는 ‘재현’과 우연히 만나 함께 하게 된다.

“20대 때 배우 적성 고민...‘진아’처럼 여행

## 으로 위로”

이연희는 현실에 치이며 불안한 미래의 ‘진아’ 역을 고민하며, 자신의 그 시절을 떠올렸다.

이미 배우의 길을 택했지만, 20대 시절의 불안한 고민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도 20대 때 했던 고민이기에 충분히 공감했어요. 20대 때 과연 제가 연기자로서 적성이 맞나 고민이 들었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여행을 시작했고, 그런 면이 진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힐링했죠. 영화에서 진아가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을 위로하는지 전하고 싶어요.”

영화 속 아르헨티나의 모습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국적 모습의 거리부터 이구아수 폭포의 웅장함까지 아름답게 담겼다.

현지 촬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8-9월에 이뤄졌다.

이연희는 최고의 장면으로 유연석과 함께 춤 탱고 신을 찍었다. “쑥스럽지만, 탱고 신이 아닐까 해요. 석양이 너무 예뻐요. 촬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즐기고 싶은 감동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촬영이 쉽지만은 않았다. 석양의 순간은 짧았고, 해가 진 후에는 기온이 떨어져 추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탱고를 추는 장면이 예쁘게 나왔지만, 사실 너무 추워서 힘들게 촬영

했죠. 그래도 낮에는 햇볕이 따뜻했고 예쁜 이국적인 모습에 촬영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어요.”

현지 분위기에 취해 ‘베사메 무조’를 부르는 장면은 직접 노래했다고 전했다. 이연희는 “감독님께서 미리 연습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 직접 불렀다”며 “현장에 있던 분들도 실제 연주자였다”고 설명했다.

웅장한 이구아수 폭포도 장관이다. 개장 1시간 전에 촬영했다며 이연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에 감탄사만 나왔다”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촬영 덕분에 감사했다. 폭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정말 속이 다 시원했다”고 회상했다.

진아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아르헨티나였다면, 이연희에게는 파리가 그런 존재라고 했다. 버킷리스트로도 세계여행을 꼽았다.

“저도 힘든 시기에 진아처럼 무작정 혼자 여행을 떠났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고 파리를 갔어요. 테라스에서 멍하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저에 대한 생각이 많이 했죠. 낭만적인 그 도시가 행복으로 느껴졌고, 새로운 인연과 추억이 생겼어요.”

## “결혼, 필요했던 순간...나이 들, 배우 인생에 도움”

상대 역인 유연석과도 아르헨티나에서의 추억이 좋은 순간으로 남아있다. “연석 오빠와 촬영 전 점심을 먹는데 자유로운 현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진아와 재현이 다른 커플보다 잘 나와야 한다며 어떻게 좋은 케미를 만들까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현장에서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전 남자친구 역으로 깜짝 출연한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등장도 웃음을 불러온다. 이연희는 “시원 오빠가 캐스팅됐을 때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촬영할 때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어쩔 그렇게 비열한 연기가 잘 어울리는지, 재밌게 촬영하며 많이 웃



었다”고 말했다.

30대인 현재, 20대 때 고민에 담은 찾았을까. “당시 배우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딜레마에 빠졌어요. 사적인 생활도 중요한데, 마음 편히 밖에 나가거나 행동할 수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닌 가면을 쓴 것도 같았죠.”

하지만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커졌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름을 알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그 시기가 지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자’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편해졌죠.”

이연희는 지난해 결혼에 이어 데뷔부터 19년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는 등 새로운 변화들을 맞았다. 그는 “10대와 20대를 SM에서 보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배우로서 저 스스로 시야겠다는 생각에 결심했

죠.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서로 응원하면서 해어졌어요. SM이 있어 제가 있지 않으나 싶은 생각도 해요. 감사하죠.”

결혼도 필요했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저는 10대 때 익숙한 친구들을 떠나 대학을 갈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실례보다 새로운 상황에 두려움이 앞섰죠. 결혼은 두려움보다는 제게 너무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나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탕엔 나이 들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연희는 40대의 자신이 더 기대된다고 했다.

“20대에 두려움이 컸다면, 30대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30대가 되니 두려움보다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나갈지 생각하게 돼요. 제겐 30대가 너무 좋고 40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물론 나이 들이 제 배우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뉴스



## ‘펜트하우스2’ 대본리딩 현장...이지아가 없다?

오는 19일 첫 방송

‘펜트하우스2’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시즌1 당시 주역들이 대부분 자리한 가운데 심수련 역을 맡았던 이지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SBS TV 새 금드극 ‘펜트하우스2’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만지, 교육 1만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으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 이야기를 담는다.

3일 공개된 대본 리딩 현장에는 유진, 김소연,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윤종훈, 박은석, 윤주희, 하도권 등 배우들과 김순옥 작가, 주동민 감독이 자리했다.

김현수, 진지희, 김영대, 한지현, 최예빈, 이태빈 등 ‘펜트 키즈’들 역시 활력을 더했다.

주 감독은 “앞으로 7개월간 같이 잘해서 자랑스럽고 즐거웠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지독한 모성애로 인생을 걸고 질주하다 괴물로 변한 오윤희 역을 통해 ‘인생개 경신’을 이룬 유진은 강인해진 눈빛과 목소리로 오윤희를 구현했다.

시즌1에서 끝없는 악행을 펼치며 결국 펜트하우스를 차지, 약녀의 새 역사를 쓴

김소연은 천서진에 완벽 빙의된 날카로운 톤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심수련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던 극악무도한 끝판왕 주단태 역 엄기준은 병렬함이 물씬 묻어나는 어조로 명물화된 연기력을 입증했다.

비밀스러운 이중생활로 관심을 모았던 강마리 역 신은경, 마마보이이자 악트리오의 주축 멤버인 이규진 역 봉태규, 아내 천서진과 격렬한 대립 끝에 병원에서 물러났던 하윤철 역 윤종훈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민설애에 이어 심수련까지 잃은 절망적인 상황과 부딪힌 로건리 역 박은석, 이규진의 아내이자 전 아내로서 출신 고상아 역 윤주희, 전형적인 강약강으로 알미움의 끝판왕을 선사했던 마두기 역 하도권 등은 각 캐릭터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제작진은 “이미 입증된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과 단단한 연기 케미, 시즌2를 향한 열정과 더욱 폭발적인 스토리가 합을 이루면서 대본 리딩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사 한 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을 만큼 대본 리딩에서부터 완벽한 호흡을 펼쳐낸 배우들의 열연을 ‘펜트하우스2’ 본 방송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 지성·김민정·진영·박규영, ‘악마판사’...tvN 하반기 방송

‘전 국민 참여 라이브 법정 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 던지는 드라마

배우 지성, 김민정, 진영, 박규영이 전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라이브 법정 쇼에서 만난다. tvN 새 드라마 ‘악마판사’ 측은 3일 지성, 김민정, 진영, 박규영의 캐스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방송 예정인 ‘악마판사’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다.

혼란의 시대에 등장한 악마판사 ‘강요한’은 모두의 영웅일까, 법관의 가면을 쓴 악마일까.

먼저 법복을 입고 악인들을 사냥할 시범재판부 재판장 ‘강요한’ 역은 지성이 맡는다. 강요한은 법관의 가면을 쓰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을 가차 없이 징벌하는 법정 쇼의 악마판사다. 귀족적인 외모와 우아한 취향 등 화려한 외연과 속내를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의 강요한을 표현할 지성의 변신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정은 강요한의 유일한 최측근인 사회적 책임 재단 상임이사 ‘정선아’ 역으로 돌아온다. 빼어난 외모와 영민한 두뇌, 타고난 매력 을 가진 정선아는 강요한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과 긴밀하게 얽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매혹적인 주재자다. ‘악마판사’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김민정의 목격당한 연기 내공에 기대가 높아진다.

디스토피아 속 유일한 희망으로 비칠 시범 재판부 소속 배서 판사 ‘김가운’ 역은 진영이 맡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거친 청소년기를 보낸 김가운은 죽음을 다해 노력한 끝에 초임 판사 자리에 앉은 끈기와 욕심 있는 캐릭터다. 강요한을 감시하며 점점 혼란에 빠지는 김가운을 진영이 어떻게 표현해낼지 주목된다.

김가운의 오랜 친구이자 강요한의 비밀을 쫓는 추적자인 광역수사대 형사 ‘윤수현’ 역은 박규영이 맡는다. 윤수현은 김가운과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낸 친남매 같은 사이로 시원시원한 성격과 미모로 인기가 많지만 김가운만 그 매력을 몰라준다. 박규영이 여사친의 정석과 매력적인 광수대 에이스 윤수현을 보여줄 예정이다.

‘붉은 달 푸른 해’를 연출한 최정규 감독과



‘미스 함무라비’를 집필한 전직 판사 출신 문우석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특히 악을 잔혹하게 심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배심원으로 두고 라이브 법정 쇼를 여는 드라마의 설정은 흥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현실감과 재치가 더해져 어떤 사회적 화두를 제시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 방탄소년단, ‘빌보드 글로벌’ 2위...‘21주 연속’ 최장 톱5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BE’(Deluxe Edition)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글로벌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2월 6일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2위,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4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는 전 세계 200개 이상 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긴다.

앞서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총 8차례 1위를 차지, 차트 신설 이래 최다 1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최신 차트까지 21주 연속 톱5에 머물러 최장 ‘톱5 유지’ 기록을 지속했다.

또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내 다른 차트들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46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 3위, ‘어덜트 컨템퍼러리’ 18위, ‘캐나다 핫(HOT) AC’ 23위에 각각 랭크됐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새 앨범 ‘BE(Deluxe Edition)’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또한 차트 통력을 이어가고 있다.

‘BE(Deluxe Edition)’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66위를 기록했다. ‘월드 앨범’ 10주 연속 1위, ‘인디펜던트 앨범’ 8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16위, ‘톱 앨범 세일즈’ 23위를 각각 차지했다. ‘라이프 고즈 온’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9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59위에 올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BE(Essential Edition)’를 발매한다. ‘BE(Essential Edition)’는 ‘핫 100’ 1위와 ‘2021 그레미 어워드’ 후보 등재라는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간 전 세계 팬들에게 방탄소년단이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선보이는 앨범이다.